

고려 태조대 6위 설치와 군제 운영

김 종 수*

1. 머리말
2. 태조 2년 6위 설치
3. 태조대 6위의 구성
4. 태조대 군제의 운영
5.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조선시대의 학자 놀재 양성지는 세조 원년(1455)에 올린 상소문에서

우리 본조(本朝)는 … 조종(祖宗)의 공과 덕이 전조(前朝:고려)에 양보할 것이 없고 가법(家法)의 정대함은 그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전조(前朝) 병제(兵制)의 훌륭한 점은 비록 오늘에 와서도 쉽게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¹⁾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1) 『世祖實錄』 권1, 세조 원년 7월 戊寅, ‘我本朝 … 朝功宗德 無讓前朝 而家法之正 則遠過焉 但前朝兵制之盛 雖今日或未易擬也’

라고 고려 병제의 우수함을 칭찬하였다. 고려의 군사제도는 조선의 그것에 비해 훨씬 훌륭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성지가 칭찬한 고려의 군제는 2군 6위로 대표되는데, 2군 6위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가 태조 왕건 때이다.

태조대는 500년 고려왕조 군제의 큰 틀을 마련한 시기였다. 이때 만들어진 군제는 조종(祖宗)의 전장(典章)으로서, 고려후기까지 비록 약간의 제도의 첨삭은 있었지만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태조대에 설치된 6위는 후에 2군이 첨가되어 2군 6위가 되었고, 이것은 고려 말 8위로 칭해진 이후²⁾ 조선초기에 10위로 증편되었으며, 『경국대전』에서는 5위제로 개편되었다. 태조대의 군제는 고려와 조선시기를 합쳐 대략 700년의 역사에 그 영향을 미친 셈이다.³⁾ 그런데 지금까지 태조대 군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는 이루지지 않았다. 태조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나왔지만, 태조대 군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⁴⁾

태조대 군제에 대한 연구가 부실한 이유는 사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사료도 연구자들의 선입관에 의해 부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태조 2년(919) 6위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무려 4군데에서 나오지만, 연구자들은 6위가 태조대에 설치되었을 리 없다고 이를 간단히 부정하였다. 이렇게 6위 설치가 부정됨에 따라 후삼국통일 전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조대 군인의 구성, 평시체제와 전시체제의 운영 등 군제에 관한 연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즉 태조대에 운영된

2) 『高麗史』 77, 百官 2, 西班. ‘至恭讓王時 二軍六衛 並稱八衛’

3) 임진왜란 중 혼란도감의 설립으로 5위제적인 군제는 해체된다. 이에 대해서는 拙著,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혜안, 2003. 참조.

4) 태조대 군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과 저서 참고.

李基白, 「高麗京軍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洪承基, 「高麗初期 中央軍의 조직과 역할-京軍의 성격-」,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鄭景鉉, 「高麗 太祖代의 御軍部에 대하여」, 『韓國學報』13, 1987.

鄭景鉉, 「高麗前期 二軍六衛制 研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鄭景鉉, 「Ⅲ. 군사조직 1. 경군」, 『한국사13 - 고려전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3.

군제는 사료도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사료도 잘못된 사료라고 부정됨에 따라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2장에서 기존에 제기된 태조 2년 6위 설치 부정론을 비판하고자 한다. 6위 설치 부정론을 부정함으로써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음을 강조하려 한다. 3장에서는 태조대 6위를 구성하는 군인들의 면모와 출신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태조대 6위 군인들은 이후 세병제(世兵制)에 따라 자손 대대로 군인 신분을 물려주게 된다. 따라서 태조대 군인의 성격에 대한 규명은 고려전기 중앙군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⁵⁾ 그리고 4장에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를 둘러싼 태조대 군제의 운영과 군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전기에는 군인 세력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기원이 태조대에 있었다. 태조대 군제는 500년 고려왕조의 기틀을 확립하고 고려전기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으며, 이후 역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2. 태조 2년 6위 설치

고려전기의 중앙군은 2군 6위의 형태로 편제되었다. 2군은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 등 2개의 군(軍)이고, 6위는 좌우위(左右衛), 신희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 금오위(金吾衛), 천우위(千牛衛), 감문위(監門衛) 등 6개의 위(衛)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2군 6위 중 6위가 2군보다 먼저 설치되었다. 『고려사』, 백관지에는 2군 6위의 연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5) 고려전기 중앙군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권영국, 「고려전기 중앙군의 성격」,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2002. 참조.

4 軍史 第88號(2013. 9)

(태조) 2년에 6위를 설치하였다. 목종 5년에 6위의 직원을 비치하였다.
후에 응양(鷹揚)·용호(龍虎) 2군을 설치하여 6위의 상위에 있게 하였다.⁶⁾

6위가 설치된 것은 태조 2년(919) 때의 일이고, 2군은 6위보다 상위의 부대이지만 그 설치시기는 목종 5년(1002) 이후였다고 한다. 그런데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사는 다음과 같이 『고려사』, 세가와 병지, 『고려사절요』 등에서도 발견된다.

- (태조) 2년 춘 정월 송악의 남쪽에 도읍지를 정하여 궁궐을 짓고, 3성(省) 6상서관(尙書官) 9시(寺)를 설치하였다. 시전(市廛)을 세우고, 방리(坊里)를 구분하였으며, 5부(部)를 나누고 6위(衛)를 설치하였다. (『고려사』 권 1, 세가 1, 태조 2년 정월)
- 태조 2년 정월 6위를 설치하였다.(『고려사』 권81, 병지 1, 병제)
- (태조) 2년 춘 정월 송악의 남쪽에 도읍지를 정하고, 그 군(郡)을 승격시켜 개주(開州)라 칭하였다. 시전을 세우고 방리를 구분하였으며 5부를 나누고 6위를 설치하였다.(『고려사절요』 권1, 태조 2년 정월)

이와 같이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사는 『고려사』, 백관지, 세가, 병지와 『고려사절요』 등 총 4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 가지 사실을 『고려사』에서 이처럼 여러 군데에 중복 서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를 통해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된 것은 특기할 만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려시기 군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고려 병제사연구』를 저술한 이기백 교수는 목종 5년(1002)에 6위가 창설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⁷⁾, 다시 성종 14년(995) 경에 6위가 완비되었을 것이

6)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西班.

7) 李基白, 「高麗 京軍考」, 앞의 책, 67쪽.

라고 주장하였다.⁸⁾ 정경현 교수 역시 “고려의 중앙군이 태조 2년부터 6위로 편제되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은 『고려사』 편찬자의 잘못으로 판단된다. 6위의 중앙군제는 당나라의 12위 병제를 바탕으로 한 병제였다. 그러나 태조대라고 하면 왕조의 창업기인 동시에 전란의 시대라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직 중국식 제도들을 수용할 만큼의 안정되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또 “태조대의 역사는 출병과 전투에 관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위(衛)의 실재를 방증할 만한 구체적 단서는 전혀 없다. 만일 6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출전 무장들 가운데 반드시 6위의 무직(武職)을 지닌 인물이 있을 법도 한데도 무지 그런 사례가 보이질 않는 것이다. 또한 고려에 3성 6부 9시와 같은 중국식 정치기구들이 설치된 것도 사실은 태조대가 아니라 성종대의 일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건대, 태조대의 중앙군은 6위와는 무관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⁹⁾라고 주장하고, 이기백 교수와 같이 성종 14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위와 같이 『고려사』의 태조 2년 6위 설치설은 정경현 교수에 의해 체계적으로 부정되었는데, 그 논거는 모두 4가지이다. 첫째, 『고려사』 편찬자의 착오이다. 둘째, 태조대는 왕조 창업기라서 6위제를 수용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셋째, 태조대에 6위의 무반 관직을 지닌 인물을 발견할 수 없다. 넷째, 『고려사』 세가에서는 태조 2년에 3성 6부 9시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성종대에 설치되었으므로 6위도 성종대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이상 네 가지 이유에서 정 교수는 태조 2년 6위 설치설을 부정하고 있다. 태조 2년 6위 설치 부정론의 기반이 되는 이 네 가지 논거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고려사』 편찬자의 착오라고 하지만,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조선시기 세종~문종 대에 걸쳐 십여 명에 이르는 춘추관 수사관(修史官)들이 합동으로 편찬한

8) 李基白, 「高麗 二軍·六衛의 形成過程에 대한 再考」, 앞의 책, 79쪽.

9) 鄭景鉉, 「Ⅲ. 군사조직 1. 경군」, 앞의 책, 1993, 271~272쪽.

역사서이다.¹⁰⁾ 『고려사』의 세가, 백관지, 병지와 『고려사절요』는 모두 다른 사람이 편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¹¹⁾ 이들 역사서 각각에서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들을 편찬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려시기에 작성된 원사료에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편찬자들이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원칙에 따라 이것을 그대로 기술하였을 것이다.

둘째, 태조대는 왕조 창업기라서 6위제를 수용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군사조직을 6위로 나누는 것과 같은 군제 개편은 여유 있는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군인들을 몇 개의 부대를 나누어 통솔하는 것은 군사 운용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894년(진성여왕 8) 궁예는 양길의 병력 일부를 받아 복원을 출발하여 명주(강릉)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무리가 3,500인으로 증가하자 이들을 14대(隊)로 나누고 금대·검모·혼장·귀평·장일 등을 사상(舍上:부장)으로 삼았다고 한다.¹²⁾ 아직 국가를 만들지도 못한 궁예는 병력이 대폭 증가하자 즉시 이들을 14대로 편제하고, 각각의 부대에 부장(部長)을 임명하여 군사조직을 재정비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투시의 기동성과 분산성, 집중성을 높이고, 단위부대 중심의 독자적인 전투수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¹³⁾ 따라서 궁예의 정치, 군사체제를 이어받은 왕건이 태조 2년에 군사조직을 6위로 개편하는 것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손자병법』에서 “많은 병력을 통솔하는 것을 적은 병력을 통솔하듯이 할 수

10) 『文宗實錄』 권12, 文宗 2년 2월 庚申 條에 『高麗史』 修史官들의 명단이 나온다.

11) 邊太燮, 『「高麗史」의 研究』, 三英社, 1982, p.44. 변태섭 교수는 여기서 “(고려사) 列傳과 紀·志·年表를 작성한 젊은 史官들의 分科가 어떠한지 알 수 없다. 梁誠之가 地理志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밖의 分담은 지금으로서 알 길이 없다. 文宗 즉위년 10월 庚辰에 藝文館提學 李先齊가 高麗式目形止案에 수록된 兩界軍의 編成을 소개한 것으로 보아 刪潤을 맡았던 그가 兵志와 관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쓰고 있다.

12) 『三國史記』 50, 列傳 10, 弓裔. ‘乾寧元年 入溟州 有衆三千五百人 分爲十四隊 金大·黔毛·斯長·貴平·張一等 爲舍上[舍上謂部長也]’

13) 신성재,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21.

있는 것은 분수(分數:군사편제) 때문이다.”¹⁴⁾라고 하듯이, 군사조직을 몇 개의 하위 부대로 나누어 통솔하는 것은 군사편제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수천 명의 군인들을 6위 등의 군사편제로 나누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겠는가?

셋째, 태조대 사료에 6위의 무반 관직을 지닌 인물을 발견할 수 없어, 태조 2년 6위의 설치가 의문시된다고 했는데, 태조대뿐만 아니라 고려초기의 사료는 소략하기 짝이 없다. 이것은 『고려사』, 황주량(黃周亮) 열전에 “지난 시기에 거란병이 경성을 함락시키고 궁궐에 불을 질러 서적이 모두 다 잿더미로 화하였다”¹⁵⁾라고 하듯이, 현종 초 거란병이 개성을 함락시키고 궁궐에 불을 질러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등 7대에 걸친 실록이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황주량이 왕명을 받아 각지를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7대 사적’을 편찬하여 왕에게 바쳤다고는 하나 원본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고려초기의 기록은 부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태조대에는 장군 이외에 그 아래 장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따라서 6위의 무반 관직을 지닌 인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고려초기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태조 2년에 3성 6부 9시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성종대에 설치되었으므로 6위도 성종대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된 것을 알려주는 4가지 사료 가운데, 유독 『고려사』, 세가에서만 3성 6부 9시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 백관지, 병지와 『고려사절요』 등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 따라서 『고려사』 세가에서 태조 2년에 3성 6부 9시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이것은 성종대에 설치된 것이므로, 6위도 성종대에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한 사료의 문제점을 가지고 나머지 사료 모두를 부정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려사』, 세가의 태조 2년에 수록된 3성 6부 9시에

14) 『孫子兵法』, 勢篇. ‘凡治衆如治寡 分數是也’

15) 『高麗史』95, 列傳 8, 黃周亮. ‘初契丹兵 陷京城 燒宮闕 書籍盡爲煨燼 周亮奉詔 訪問採掇 撰集太祖至穆宗七代事跡’

관한 내용만 잘못 기재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나머지 기록들, 즉 태조 2년에 시전을 세우고 방리를 구분하였으며 5부를 나누는 등의 기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태조대에 시전을 세웠다는 것은 『삼국유사』, 왕력(王曆)편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경진년(920)에 유암(乳岩) 밑에 유시(油市)를 세웠다. 따라서 지금 풍속에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유하(乳下)라고 한다.¹⁶⁾

『삼국유사』의 위 기록에서는 시전을 유시(油市)라 칭하고 경진년(920)에 세웠다고 하므로, 태조 2년(919)과는 1년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태조 2년에 시전을 세운 사실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태조 2년에 방리를 구분하고 5부를 나누었다는 기록들은 학계에서 대체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¹⁷⁾ 따라서 『고려사』, 세가의 3성 6부 9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태조 2년에 6위를 설치하였다는 기록도 사실일 수 있다.

이상에서 태조 2년 6위 설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기존에 제기된 태조 2년 6위 설치 부정론의 4가지 논거를 비판해 보았다. 사실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고려사』, 세가, 백관지, 병지와 『고려사절요』 등 고려시기 사서의 총 4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를 간단히 잘못된 사료라고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역사가는 사료가 자신의 역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사료라고 간주하기보다는 사료가 왜 그렇게 쓰였는지 그 의미를 더 천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조 2년 6위 설치 부정론은 후대에 2군 6위가 완비된 형태를 보고 태조 2년에 그러한 형태의 군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전기의 2군 6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령(領)에 상장군, 대장군,

16) 『三國遺事』 1, 王曆 1, 太祖. '庚辰 乳岩下 立油市 故今俗 利市 云乳下'

17) 朴龍雲,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1996, 94쪽.

김창현,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114쪽.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 비평사, 2002, 115쪽.

장군 등의 장관(將官)과 정5품 중랑장~품외(品外) 대정에 이르는 경군(京軍), 그리고 지방에서 번상하는 외군(外軍)이 결합한 체계적인 군제이다. 중앙정치제도와 지방제도의 정비가 완료되고, 중앙집권적인 군사동원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군사제도인 것이다. <표 1>과 같은 2군 6위의 편제와 정원은 2군이 설치된 다음, 종래 6위의 편제와 정원을 재조정하여 완성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표 1> 2군 6위의 편제와 정원

| 2군6위 | 領 | 將官 | | | 京軍(府兵) | | | | | | 계 | 外軍 | | 계 | 기타 |
|------|----|------------|------------|-----------|------------|-----------|-----------|-----------|-----------|----------|-------|-------|-------|-------|------------|
| | | 上將軍 정3품 | 大將軍 중3품 | 將軍 정4품 | 中郎將 정5품 | 郎將 정6품 | 別將 정7품 | 散員 정8품 | 校尉 정9품 | 隊正 품외 | | 保勝軍 | 精勇軍 | | |
| 鷹揚軍 | 1 | 1 | 1 | 1 | 2 | 2 | 2 | 3 | 20 | 40 | 72 | | | | |
| 龍虎軍 | 2 | 1 | 1 | 2 | 4 | 10 | 10 | 10 | 40 | 80 | 158 | | | | |
| 左右衛 | 13 | 1 | 1 | 13 | 26 | 65 | 65 | 65 | 260 | 520 | 1,016 | 10000 | 3000 | 13000 | |
| 神虎衛 | 7 | 1 | 1 | 7 | 14 | 35 | 35 | 35 | 140 | 280 | 548 | 5000 | 2000 | 7000 | |
| 興威衛 | 12 | 1 | 1 | 12 | 24 | 60 | 60 | 60 | 240 | 480 | 938 | 7000 | 5000 | 12000 | |
| 金吾衛 | 7 | 1 | 1 | 7 | 14 | 35 | 35 | 35 | 140 | 280 | 548 | | 6000 | 6000 | 役領1 |
| 千牛衛 | 2 | 1 | 1 | 2 | 4 | 10 | 10 | 10 | 40 | 80 | 158 | | | | 常領1 海領1 |
| 監門衛 | 1 | 1 | 1 | 1 | 2 | 5 | 5 | 5 | 20 | 40 | 80 | | | | |
| 계 | 45 | 8 | 8 | 45 | 90 | 222 | 222 | 223 | 900 | 1800 | 3,518 | 22000 | 16000 | 38000 | |

典據: 『高麗史』 77, 百官 2, 西班.; 81, 兵 1, 軍制.

그런데 <표 1>과 같은 형태의 2군 6위가 나타나기까지, 6위제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군인의 수와 관등, 계급 등에서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고려 초 6위의 군액은 여러 차례 증감이 있었다. 성종 원년(982)에 올린 최승로 상서문의 시무책에는 군인 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¹⁸⁾

우리 조정의 시위 군졸들은 태조 때에는 다만 궁성을 숙위하는 일뿐이어서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광종 때에 와서 참소를 받고 장관과 재상들을 주책(誅責)하였으며, 스스로 의혹이 일어나서 군인의 수를 증원하되 주군(州郡)에서 풍채 좋은 자들을 선발하여 입시(入侍)하게 하고,

18) 李基白 외, 『崔承老上書文研究』, 一潮閣, 1994.

이들을 모두 내주(內廚)에서 식사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것을 번잡하기만 하고 이로운 점이 없다고 하였으며 경종 때에 와서는 비록 약간 감원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그 수가 많습니다.¹⁹⁾

광종 때에는 태조대에 비해 시위 군인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경종 때 약간의 감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고려 초에는 <표 1>과 같이 군인의 수가 확정되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변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고려 초 군인의 관등과 계급도 <표 1>과 같지 않았다. 『고려사』, 백관지에 “건국 초기의 관계(官階)는 문·무를 나누지 않았다.”²⁰⁾라고 하듯이 태조대에는 아직 관계상으로는 문무가 분리되지 않았다. 문무관 모두 ‘대광(大匡), 대승(大丞), 대상(大相), 원보(元甫), 원윤(元尹), 좌윤(佐尹), 정조(正朝), 정위(正位), 보윤(甫尹)’이라는 고려초기 관계를 받았다. 따라서 이 시기 군인들은 <표 1>과 같이 ‘상장군, 대장군, 장군, 중랑장, 낭장, 별장, 산원, 교위, 대정’ 등의 군 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광~보윤’에 이르는 고려초기 관계를 받았다. 그리고 태조대 군인의 등급도 ‘상장군~대정’과 같이 9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 태조대 군인이 어떤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사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경종 원년(976)에 발표된 시정전시과에는 무반은 단삼(丹衫)으로서 5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²¹⁾, 9등급은 아니었다. 따라서 후대에 완비된 2군 6위의 형태를 보고 태조대에 그러한 6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에 성인이 된 모습만을 보고 어린아이 때의 그를 성인인 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적절하지 않다. 태조 2년에 설립된 6위는 아직 2군 6위와 같은 형태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후 수많은 군제 개편을 거쳐 2군 6위제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19) 『高麗史』 93, 列傳 6, 崔承老. ‘我朝侍衛軍卒 在太祖時 但充宿衛宮城 其數不多 及光宗信讒 誅責將相 自生疑惑 增益軍數 簡選州郡有風彩者 入侍 皆食內廚. 時議以爲繁而無益 至景宗朝 雖稍減削 泊於今時 其數尚多’

20) 『高麗史』 77, 百官 2, 文散階. ‘國初官階 不分文武’

21) 『高麗史』 78, 食貨 1, 田柴科. ‘武班 丹衫以上 作五品’

3. 태조대 6위의 구성

태조대부터 중앙군 6위는 무관과 농민군으로 구성되었다.²²⁾ 무관은 복무에 대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조권)와 녹봉을 받는 군인이었고, 농민군은 양인 농민들이 군역의 의무로서 번차에 따라 번상하는 군인이었다. 무관은 도성에 거주하여 경군(京軍)이라고 하였고, 농민군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번상 근무하여 외군(外軍)이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태조대에는 아직 중앙집권적인 군사동원체제와 지방제도가 미숙하여 지방 농민들에 대한 군역 징발과 동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조 17년(934) 국왕은 예산진(禮山鎭) 조서(詔書)에서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나갔고, 여자들도 부역에 동원되었다.”²³⁾라고 하여 후삼국시기 군역 행정의 가혹성을 토로하였지만, 이 시기 농민들은 대체로 지방군에 동원되었고, 중앙에 올라온 번상 농민병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즉 태조대의 6위는 무관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성에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군사 기술을 익힌 무관이야말로 국가와 정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인 것이다.

태조대 무관들은 마군(馬軍)으로도 불렸다. 이들은 일반 보병에 비해 기동성과 충격력이 훨씬 뛰어난 병력으로서 고도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이었다. 즉 태조대 무관들은 거의 대부분 말을 타는 마군으로서 6위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실제로 태조대에 최고의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은 대부분 기장(騎將), 마군장군(馬軍將軍)이었다. 개국 1등공신인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 개국 2등공신인 능식(能植), 그리고 후삼국 통일전쟁의 최고 수훈자였던 유금필 등은 모두가 마군장군이었으며, 개국 2등공신으로서 통일전쟁기에 북방지역의

22) 고려시기 중앙군이 무관과 농민군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拙稿, 「高麗·朝鮮初期의 府兵」, 『歷史教育』 69, 1999.; 「高麗時期 府兵制의 運營과 그 原則」, 『歷史教育』 73, 2000. 참조.

23) 『高麗史』 2, 世家 2, 태조 17년 5월. ‘男盡從戎 婦猶在役’

축성사업과 변방수비를 전담하다가 통일 직후 재신(宰臣)이 된 염상(廉湘)은 마군대장군이였다. 또한 태조 즉위 직후에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처형된 이혼암과 환선길도 마군대장군의 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였다.²⁴⁾ 태조대 중앙군은 무관 신분인 마군이 병력의 주축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후삼국 시기 고려가 후백제의 각 성을 공략할 때는 마군이 중심이 된 중앙군이 출동하여 전쟁을 치르고, 성을 공략한 이후에는 소수의 무관만을 남겨놓아 지방 농민으로 구성된 지방군을 통솔·관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태조 11년(927) 11월 오어곡성의 함락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견훤이 날랜 군사를 뽑아서 오어곡성(烏於谷城)을 함락시키고 수졸(守卒) 일천 명을 죽이니 장군 양지(楊志)와 명식(明式) 등 6인이 항복하였다. 왕은 제군(諸軍)을 구정(毬庭)에 모이게 하여 6인의 처자를 제군 앞에 조리돌리고 기시(棄市)하였다.²⁵⁾

이 기사를 통해 오어곡성에는 장군 양식, 명식 등 6명의 장군 장교와 수졸(守卒) 수천 명이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식, 명식 등 6명의 장군·장교는 중앙에서 파견되어 지방군인 수졸들을 통솔·관리하는 책무를 맡고 있었다. 이 6인이 견훤에 항복하자 태조 왕건은 도성에 거주하던 처자들을 붙잡아 제군(諸軍) 앞에서 처형한 것이다. 한편 중앙에서 파견된 장군·장교가 무단으로 성을 이탈하면 지방군들은 흩어지고 성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즉 태조 원년(918) 6월,

(이혼암은) 궁에 말년에 군사를 거느리고 웅주(熊州)를 습격하여 점령하고 있다가, 태조가 즉위한 소식을 듣고 가슴 속에 화심(禍心)을 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도성으로 올라왔다. 이에 사졸들은 대부분이 도망쳤으며 웅주는 다시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²⁶⁾

24) 鄭景鉉, 「高麗前期의 保勝軍과 精勇軍」, 『韓國史研究』 81, 1993, 51쪽.

25) 『高麗史』 1, 世家 1, 태조 11년 11월.

26) 『高麗史節要』 1, 태조 원년 6월; 『高麗史』 127, 列傳 40, 叛逆 1, 伊昕巖.

라 하여, 이혼암이 태조 왕건이 즉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웅주(熊州)를 이탈하여 도성으로 올라오자 사졸들이 도망쳐 웅주가 다시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한다. 10년 후인 태조 10년(927) 4월 태조 왕건은 직접 중앙군을 이끌고 웅주를 다시 공격하였다.²⁷⁾

태조대 중앙 정부는 고려 왕조에 협력하는 호족이 직접 다스리는 지방을 제외한 각 성(城)과 군현에 무관을 파견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또 만약 고려에 귀부한 호족이 그 지방을 방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무관을 파견하여 지방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다.²⁸⁾ 그런데 무관이 적에게 항복하거나 이탈하여 성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 성은 이후 재차 중앙군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후삼국시기 지방 군현들은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강의 실력자에게 귀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반부상반(叛附相半)²⁹⁾하는 주현(州縣)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각 지방 호족들의 요구와 희망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교력과 포용력도 필요하였겠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중앙군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태조대 중앙군은 후삼국 통일과 고려 국가의 유지·발전을 위한 무력적 기반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조대 중앙군인 6위를 구성하는 군인의 성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위 군인들은 첫째, 궁예정권의 군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태조 왕건 본인이 궁예정권 군인 출신이고, 또 앞에서 언급한 개국공신들도 대부분 궁예정권 군인 출신이다. 개국 1등공신인 홍유·배현경·신승겸·복지겸 모두 궁예 말년 기장(騎將)이었다.³⁰⁾ 태조 왕건이 918년 6월 홍유 등의 추대를 받아 궁궐로 들어올 때 궁문 앞에서 북치고 떠들며 기다리는 자가 10,000여 인이었다고 하는데³¹⁾, 이들 중 상당수는 궁예정권의 군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궁예정권

27) 『高麗史』 1, 世家 1, 太祖 10년 4월 乙丑, ‘王攻熊州不克’

28) 황선영, 「고려초기 役分田의 성립」,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93쪽.

29) 『三國史記』 50, 列傳 10, 弓裔, ‘新羅衰季 政荒民散 王畿外州縣 叛附相半’

30) 『高麗史』 92, 列傳 5, 洪儒, ‘弓裔末年 與裴玄慶·申崇謙·卜智謙 同爲騎將’

31) 『高麗史』 1, 世家 1, 太祖 원년 6월 乙卯, ‘先至宮門 鼓譟以待者 亦萬餘人’

군인들의 출신도 다양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94년(진성여왕 8) 궁예는 양길의 병력 일부를 받아 복원을 출발하여 명주(하슬라, 강릉)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무리가 3,500인으로 증가하자 이들을 14대(隊)로 나누었다.³²⁾ 이 3,500명의 군인 속에는 양길에게서 받아온 초적의 무리도 있었고, 또 신라 북진(北鎭)의 군사들도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³³⁾ 궁예는 특히 북진의 군사들과 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군(將軍)’이라 칭하고, 신라 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한편 궁예정권의 군인에는 패강진 출신 군사도 상당수 있었다.³⁴⁾ 패강진은 신라 선덕왕 3년(782) 예성강 이북지역에 설치되어 9세기 말 궁예의 세력권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백년 이상 존속한 군진(軍鎭)이다. 패강진 지역은 군진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이면서, 또한 국경 수비 담당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곳의 주민을 군사적 편제로 조직하여 강력한 군사적 지배·지휘체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신흥의 토착 세력이 성장하였다. 9세기 후반기에 활약한 요오선사(了悟禪師) 순지(順之)의 가문은 이 지역 군관 출신이고³⁵⁾, 선종 9산 가운데 하나인 원주 사자산과의 제2조인 징효대사(澄曉大師) 절중(折中) 역시 이 지역 출신으로 그 아버지가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여 중국과 신라에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³⁶⁾ 이와 같이 군사적 성격이 강한 패강진 지역의 호족들은 새롭게 성장하는

32) 『三國史記』 50, 列傳 10, 弓裔. ‘乾寧元年(진성왕 8년, 894) 入溟州 有衆三千五百人 分爲十四隊’

33) 拙稿, 「신라 하대 軍制的 변화와 그 붕괴」, 『軍史』 80, 2011, 28쪽.

34) 고려초 패강진 및 溟西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金光洙, 「高麗建國期の 溟西豪族과 對女眞關係」, 『史叢』 21·22, 1977.

金福姬, 「高麗 初期 官階의 成立基盤 - 溟西豪族의 動向과 관련하여 -」, 『釜大史學』 14, 1990.

李成制, 「高麗 太祖代 溟西人의 動向 - 北方政策과 後三國統一政策과의 관련 속에서」,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5) 『祖堂集』 20, 瑞雲寺 和尚 順之. ‘俗姓朴氏 溟江人也 祖考並家業雄豪 世爲邊將’

36) 한국역사연구회 편,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혜안, 1996, 150쪽. ‘大師 諱折中 字□□ 俗姓□□(漢州)鵝嵩人也 其先因宦牟城 遂爲郡族 父日先幢 藝高弓馬 名振華夷’

궁예에 주목하였다. “(궁예의) 군성(軍聲)이 심히 강성해지자 패서(溍西) 적구(賊寇)로서 내항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³⁷⁾는 기록은 패강진 지역의 호족들이 궁예에 귀부한 사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패강진 호족들이 귀부하자 궁예는 ‘개국칭군(開國稱君)’하게 되었다고 할 만큼 패강진 군사들은 궁예 군인의 주축이 되었다.

또 궁예정권 군인 중에는 청주(淸州) 인들도 있었다.³⁸⁾ 궁예는 905년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천도하기 1년 전에 ‘청주인 1,000호’를 철원으로 이주시켜 새로운 도읍의 건설을 준비했다고 한다.³⁹⁾ 궁예가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한 것은 패강진 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전제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되는데, 궁예는 양길의 부하가 되기 이전부터 청주와 인연이 있어 청주인 1,000호를 이주시켜 새 도읍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고 한다.⁴⁰⁾ 이 이외에도 궁예정권의 군인에는 각처에서 귀부해온 호족의 군인들도 있었다. 또 궁예의 내군장군 은부(兪鈇)는 어려서 머리 깎이고 목에 칼을 찬 죄인 출신이고⁴¹⁾, 후에 고려 개국공신이 된 배현경은 항오(行伍)⁴²⁾, 즉 일반 병졸 출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궁예정권 군인에는 죄인과 병졸 출신도 있었다. 궁예정권 군인들은 이와 같이 초적 출신, 복진 출신, 패강진 출신, 청주인, 호족의 군인들, 죄인·병졸 출신 등 다양한 신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궁예정권 군인들이 태조대 6위 군인의 주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37) 『三國史記』 50, 列傳 10, 弓裔. ‘軍聲甚盛 溍西賊寇 來降者衆多 善宗自以爲衆大 可以開國稱君 始設內外官職’

38) 궁예와 청주 세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金甲童, 「高麗建國期の 淸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1985.

金周成, 「高麗初 淸州地方의 豪族」, 『韓國史研究』 61·62, 1988.

安永根, 「羅末麗初 淸州勢力의 動向」, 『朴永錫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上, 1992.

申虎澈, 「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豪族」·「弓裔와 王建과 淸州豪族-高麗 建國期 淸州豪族의 정치적 성격-」, 『後三國時代 豪族研究』, 도서출판 개신, 2002.

39) 『三國史記』 50, 列傳 10, 弓裔. ‘天祐 元年(효공왕 8년, 904) … 秋七月 移靑州人戶一千 入鐵圓城爲京’

40) 申虎澈, 「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豪族」, 앞의 책, 325쪽.

41) 『高麗史』 1, 世家 1, 太祖 원년 6월. ‘內軍將軍兪鈇 幼爲髡鉗’

42) 『高麗史』 92, 列傳 5, 裴玄慶. ‘膽力過人 起行伍 累進大匡’

둘째, 태조대 6위의 군인에는 고려 건국 이후 귀부한 호족의 군인들도 일부 있었다. 특히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고려에 온 대표적 호족 세력은 명주장군 왕순식, 벽진군장군 이충언, 염주(鹽州)출신 윤선(尹瑄), 경산부(京山府)장군 이능일(李能一) 등이다. 왕순식은 태조 10년(927) 아들 장명(長命)을 보내 군졸 600명을 이끌고 개경에 들어와서 숙위하게 하였다.⁴³⁾ ‘군졸 600명이 개경에 들어와서 숙위하였다.[入宿衛]’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중앙군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벽진군장군 이충언 역시 그 아들 이영(李永)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태조의 원정에 종군하게 하였다.⁴⁴⁾ 염주인 윤선은 궁예의 전제정치에 반발하여 북변으로 도망가 무리 2,0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다가 태조가 즉위하자 귀부하였다.⁴⁵⁾ 경산부장군 이능일 등은 태조 8년(925) 600인을 거느리고 태조의 전쟁을 도왔다.⁴⁶⁾ 이외에도 청주 영군장군 견금(堅金, 태조 1년), 상주적수 아자개(阿字盖, 태조 1년), 강주장군 윤웅(閔雄, 태조 3년), 하지현장군 원봉(元奉, 태조 5년), 진보성주 홍술(洪術, 태조 6년), 명지성장군 성달(城達, 태조 6년), 벽진군장군 양문(良文, 태조 6년), 고을부장군 능문(能文, 태조 8년), 재암성장군 선필(善弼, 태조 13년) 등 수많은 호족들이 귀부·내투(來投)하였다.⁴⁷⁾ 이와 같이 고려에 귀부해 온 호족의 군인들은 대부분 지방군으로 편입되었겠지만 일부분은 중앙군으로도 선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태조대 6위 군인에는 발해와 후백제 군인도 다수 편입되었다.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된 것은 926년(태조 9년) 정월인데, 이 시기를 전후

43) 『高麗史節要』 1, 태조 10년 8월. ‘溟州將軍順式 遣子長命 以卒六百 入宿衛’

44) 『高麗史』 92, 列傳 5, 王順式 附 李恩言. ‘遣其子永 率兵 從太祖征討’

45) 『高麗史』 92, 列傳 5, 王順式 附 尹瑄.

46) 『慶尙道地理志』, 星州牧官. ‘京山府將軍 李能一 裴申乂 裴崔彦 在高麗太祖統合三韓時 天授乙酉(925) 率六百入 佐太祖勝百濟 以其勞厚賞’

47) 태조대의 귀부호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申虎澈, 「歸附 豪族의 정치적 성격」, 『後三國時代 豪族研究』, 도서출판 개신, 2002.

구산우, 「高麗 太祖代의 귀부 호족에 대한 정책과 향촌사회」, 『지역과 역사』 11, 2002.

蔡守煥, 「王建의 高麗建國 過程에 있어서 豪族勢力」, 『白山學報』 82, 2008.

하여 많은 발해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하였다.⁴⁸⁾ 태조 8년(925) 9월 병신(丙申) 일에 발해장군 신덕(申德) 등 500인이 내투하고⁴⁹⁾, 그 4일 후인 경자(庚子) 일에는 예부경 대화균(大和鈞)을 비롯하여 좌우위장군 대심리(大審理) 등이 100호를 이끌고 내투하였으며⁵⁰⁾, 그해 12월에는 좌수위 소장(小將) 모두간(豆冏干) 등이 1,000호를 이끌고 내부(來附)하였다.⁵¹⁾ 또 『고려사』, 세가, 태조 17년(934) 7월조에는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내투하니, 그에게 왕계(王繼)라는 성명을 내려주고 종적(宗籍)에 실게 하였다. 특별히 원보(元甫)라는 관등을 주고, 백주(白州)를 지키게 하였으며, 발해 왕실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그를 따라온 관료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군사들에게는 토지와 집을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⁵²⁾

라 하여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내투한 기사가 나온다.⁵³⁾ 발해유민의 고려 내투는 태조 8년(925)부터 예종 12년(1117)까지 무려 20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가장 많이 내투한 시기는 태조대이다. 이때에 내투한 발해유민의 수는 31,873인으로 전체 42,677인의 75%에 달하고 있다.⁵⁴⁾ 그리고 발해인의 대표자 명단을 분석해보면, 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다.⁵⁵⁾ 고려 정부에서는 내투한 발해

48) 발해 유민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 참조.

李鍾明, 「高麗에 來投한 渤海人考」, 『白山學報』 4, 1968.

金昌謙, 「後三國 統一期 太祖 王建의 溘西豪族과 渤海遺民에 대한 政策研究」, 『史林』 4, 1987. 韓圭哲, 「渤海流民의 高麗投化-後渤海史를 중심으로」, 『釜山史學』 33, 1997.

이재범, 「고려 태조대의 대외정책-발해유민 포섭과 관련하여-」, 『白山學報』 67, 2003. 이효형,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2007.

49) 『高麗史』1, 世家 1, 太祖 8년 9월.

50) 위와 같음.

51) 『高麗史』1, 世家 1, 太祖 8년 12월 戊子.

52) 『高麗史』2, 世家 2, 太祖 17년 7월.

53) 위 인용문은 『고려사절요』에는 태조 8년(925) 12월로 기재되어 있어, 대광현이 실제 내투한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임상선,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999, 123~128쪽. 참조.

54) 이효형, 앞의 책, 228쪽. 「〈표 9〉 고려시대 내투인 비교」 참조.

55) 李鍾明, 앞의 논문, 202~204쪽.

군사들에게 위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와 집을 주었는데, 이것은 이들을 고려의 무관으로 편입하였다는 의미이다. 일반 병졸은 의무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려의 무관이 된 발해출신 군사들은 이후 많은 활약을 하였다. 대광현의 아들로 전하는 대도수(大道秀)는 성종 12년(993) 거란의 1차 침입 때 중랑장으로서 안용진에서 거란군을 물리치고, 현종 1년(1010) 2차 침입 때는 장군으로 승진하여 서경에서 거란군에 맞서 싸웠다. 또 발해인 대장군 대회덕(大懷德)은 거란의 2차 침입 때 광주에서 전사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태조대에 중앙군으로 편입된 발해 군인들은 자손대대로 많은 활약을 하였다.

한편 6위의 군인에는 후백제 군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태조 10년(927) 8월 고사갈이성주 흥달(興達)⁵⁷⁾, 태조 15년(932) 6월 후백제 장군 공직(龔直)⁵⁸⁾, 태조 19년(936) 2월 견훤의 사위 박영규⁵⁹⁾ 등이 고려에 투항하였다. 흥달이 귀순하자 ‘백제가 배치한 군인과 관리들이 모두 다 항복 귀순하였다.’⁶⁰⁾라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투항해올 때 군인들도 함께 따라왔음을 알 수 있다. 또 태조 17년(934) 운주(運州) 전투에서 후백제의 용장(勇將) 상달·최필 등이 생포되자 응진 이복 30여 성이 항복하였다고 한다.⁶¹⁾ 이와 같이 생포하고 항복한 후백제 군인 중 일부는 고려 중앙군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이외에 모집에 의해서도 중앙군 충원이 이루어졌다. 『동국여지승람』, 선산도호부, 인물조에는 김선궁(金宣弓)에 대하여 “태조가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송선(嵩善)에 이르렀을 때 군인을 모집하였는데 선궁(宣弓)은 향리로서 응모하였다. 태조가 기뻐하여 자신의

56) 이효형, 앞의 책, 258~259쪽. 참조.

57) 『高麗史』 1, 世家 1, 太祖 10年 8월 丙戌. ‘王狗康州 高思葛伊城城主興達 歸款 於是百濟諸城守皆降附’

58) 『高麗史』 2, 世家 2, 太祖 15年 6월 丙寅. ‘百濟將軍龔直 來降’

59) 『高麗史』 2, 世家 2, 太祖 19年 2월. ‘甄萱婿 將軍朴英規 請內附’

60) 『高麗史』 92, 列傳 5, 王順式 附 興達. ‘於是百濟所置軍吏皆降附’

61) 『高麗史』 92, 列傳 5, 庚黔弼. ‘十七年 太祖自將征運州 … 勇將 尙達·崔弼 熊津以北三十餘城 聞風自降’

활을 하사하니, 이로 인해 이름이 되었다.”⁶²⁾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태조대에는 모집에 의하여 군인을 충원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조대 중앙군은 무관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태조대 무관들은 궁예정권 출신 군인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이외에도 귀부 호족의 군인, 발해와 후백제의 군인, 모집에 의해 충원된 군인 등 출신이 다양하였다. 후삼국시기에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이 시기 동안 희생된 사람은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한다.⁶³⁾ 희생자 중에는 군인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도 무관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무관의 충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했다. 또 고려는 정복한 지역에 무관을 파견하여 지방군을 통솔·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복한 지역이 넓어질수록 무관의 증원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후삼국 통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관의 충원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태조대 군제의 운영

태조대 군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나뉘었다. 평시체제는 6위제와 지방군제로 운영되었고, 전시체제는 3군(軍) 형태로 운영되었다. 즉 평시체제는 6위로 이루어진 중앙군과 각 지역의 지방군이 각각 구분되어 운영하는 체제이고, 전시체제는 이러한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하여 재편성된 3군 형태의 행군조직이었다.

62) 『新增東國輿地勝覽』 29, 善山都護府, 人物條.

63) 文暲鉉·李仁哲, 「後三國期の 社會經濟的 變動과 田柴科體制的 成立」, 『史學研究』 60, 2000, p.67.

중앙군은 평상시 국왕의 시위와 개경의 방어 등을 담당하고 각종 군사 훈련에 임하였으며, 또 전국 각지로 출동하여 전투를 치르는 군대로서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조대에는 무관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지방군은 지방의 수비를 담당하는 군대였다. 다음은 태조대 지방군에 관한 사료이다.

(가) 태조 7년(924) 7월 견훤이 아들 수미강·양검 등을 보내어 조물군을 공격하였으므로, 왕이 장군 애선·왕충 등에게 명령하여 구원하게 하였다. 애선은 전사하였으나 군인(郡人: 『삼국사기』, 견훤전에는 城人)으로 표기됨.)들이 굳게 지키니 수미강 등이 손해를 입고 돌아갔다.⁶⁴⁾

(나) 태조 11년(928) 11월 견훤이 날랜 군사를 뽑아서 오어곡성을 함락시키고 수졸(守卒) 일천 명을 죽이니 장군 양지와 명식 등 6인이 항복하였다.⁶⁵⁾

(가) 사료의 군인(郡人)·성인(城人), (나) 사료의 수졸(守卒)은 모두 지방군을 가리킨다. 이들은 위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 파견된 무관의 지휘 하에 성을 수비하였다.

전시체제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재편성된 체제로서 태조대에는 주로 3군 체제로 운영되었다. 소규모 전투에는 평시체제로서 6위의 무관들이 출동하였지만, 전투가 대규모로 치뤄질 때에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재편성된 3군 체제를 갖추어 출동하였다. 태조대 후반기에는 후백제와의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로서, 군대는 주로 평시체제가 아니라 전시체제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시체제인 3군 조직이 자주 보인다. 위 (가) 사료는 1차 조물성 전투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듬해인 태조 8년

64) 『高麗史』1, 世家 1, 태조 7년 7월. ‘甄萱遣子須彌康·良劍等 來攻曹物郡 命將軍哀宣·王忠 救之 哀宣戰死 郡人固守 須彌康等 失利而歸’

65) 『高麗史』1, 世家 1, 태조 11년 11월. ‘甄萱選勁卒 攻拔烏於谷城 殺戍卒一千 將軍楊志·明式等六人 出降’

(925)에 2차 조물성 전투가 전개되었다.⁶⁶⁾ 이 전투에서

조물군 전투에서 태조는 군대를 3군으로 나누어, 대상(大相) 제공에게 상군(上軍)을 맡기고, 원윤(元尹) 왕충에게 중군(中軍)을 맡기고, 박수경·은녕에게 하군(下軍)을 맡겼는데, 전투에서 박수경 등만이 홀로 이겼다.⁶⁷⁾

라고 하는 바와 같이 태조는 군대를 상군·중군·하군, 즉 3군으로 편성하여 전투에 나섰다. 한편 3군은 좌군·중군·우군으로 편제되기도 하였다. 태조 17년(934)의 운주(運州) 전투에서 유금필이 맡은 직책이 우장군(右將軍)이었다.⁶⁸⁾ 이를 통해 3군은 좌군·중군·우군으로 편성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태조대 군대는 주로 전시체제인 3군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 무관을 ‘삼군장리(三軍將吏)’⁶⁹⁾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3군 체제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한 체제로서, 무관중심인 중앙군은 3군의 지휘부로 재편성되었고, 농민군으로 이루어진 지방군은 그 아래 사병 집단으로 재조직되었다. 이러한 3군 체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후백제와의 최후 결전인 일리천(一利川) 전투이다. 『고려사』, 세가, 태조 19년(936) 9월조에는 일리천 전투에 참가한 고려군의 병력과 편제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표 2>는 이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⁷⁰⁾

66) 1·2차 조물성 전투에 대해서는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2005; 정선용, 「高麗太祖의 對新羅同盟 체결과 그 운영」, 『韓國古代史探究』 3, 2009. 참조.

67) 『高麗史』 92, 列傳 5, 朴守卿. ‘曹物郡之戰 太祖部分三軍 以大相帝弓爲上軍 元尹王忠爲中軍 守卿·殷寧爲下軍 及戰 上軍·中軍失利 守卿等 獨戰勝’

68) 『高麗史』 92, 列傳 5, 庚黔弼. ‘十七年 太祖自將征運州 黔弼爲右將軍’

69) 『高麗史』 2, 世家 2, 太祖 16년 3월.

70) 신성재, 「일리천전투와 고려 태조 왕건의 전략전술」,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p.344. <표 1> 轉載.

〈표 2〉 일리천 전투 시 고려군의 전시체제 편제

| 군 편성 | 병종 | 병력 | 지 휘 관(관품) | 비 고 | |
|------|----|--------|---|----------------------------------|--------|
| 3군 | 좌강 | 마군 | 1만 | 견훤, 견권·박술희·황보금산(대상), 강유영(원윤) | 지천군대장군 |
| | | 보군 | 1만 | 능달·기언·한순명·혼악(원윤), 영직·광세(정조) | |
| | 우강 | 마군 | 1만 | 김철·홍유·박수경(대상), 연주(원보), 횡량(원윤) | |
| | | 보군 | 1만 | 삼순·준량(원윤), 영유·길강충·혼계(정조) | 보천군대장군 |
| | 중군 | 마군 | 2만 | 왕순식(명주 대광), 금준·왕림·왕예(대상), 인일(원보) | |
| | | 경기병 | 9,500 | 유금필(대상), 관무·관현(원윤) | 제번경기 |
| | 보병 | | 1,000 | 정순(원윤), 애진(정조) | 우천군대장군 |
| | | | 1,000 | 종희(원윤), 견훤(정조) | 천무군대장군 |
| | | | 1,000 | 김극중, 조간(원보) | 간천군대장군 |
| 원병 | 기병 | 300 | 공원(대상), 능필(원윤), 왕함윤(장군) | 제성군 | |
| | - | 14,700 | | | |
| 계 | | 87,500 | 지휘관(38), 마군(40,000), 보군(23,000), 경기병(9,500), 원병(15,000) | |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군은 좌강, 우강, 중군 그리고 원병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원병 15,000명은 ‘위삼군원병(爲三軍援兵)’⁷¹⁾이라고 하듯이 3군을 위한 후원 부대이고, 고려군은 어디까지나 좌강, 우강, 중군으로 이루어진 3군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고려사』, 태조 19년 9월 일리천 전투 기록의 맨 앞에는 ‘왕솔삼군(王率三軍)’이라 하여 태조왕건이 3군을 이끌고 전투에 나아갔다고 명시하였다.

일리천 전투 시의 3군에 대하여 이기백 교수는 태조대 중앙군의 편성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하면서, 좌강과 우강이 후에 6위를 형성하고, 중군 보병 3,000명이 후에 2군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⁷²⁾ 2군 6위의 기원을 일리천 전투 시의 3군에서 찾은 것이다. 정경현 교수 역시 이것을 중앙에서부터 이끌고 내려온 부대, 즉 중앙군이라고 파악하고, 마군

71) 『高麗史』 2, 世家 2, 太祖 19年 9月. ‘王率三軍 … 以大將軍大相公萱·元尹能弼·將軍王含允等 領騎兵三百 諸城軍一萬四千七百 爲三軍援兵’

72) 李基白, 『高麗 京軍考』, 앞의 책, 50~51쪽.

40,000, 보군 23,000, 합계 6,3000명에 이르는 중앙군의 병력수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1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하였다.⁷³⁾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군은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하여 재편성된 전시체제이다. 또 3군의 수가 87,500명에 이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중앙군과 지방군을 합한 수이기 때문이다. 일리천 전투가 일어난 지 12년 후인 정종 2년(947) 거란의 침입을 우려하여 30만에 이르는 광군을 조직한 것으로 보아⁷⁴⁾, 중앙군과 지방군을 합하여 87,500명을 동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고려의 군제는 중앙군과 지방군을 분리한 평시체제와 중앙군과 지방군을 통합한 전시체제로 운영되었다. 태조대의 전시체제를 대표하는 것이 3군이지만, 이 이외의 전시체제 군사조직으로서 개정군(開定軍)을 들 수 있다. 태조 3년(920) 3월에 북계(北界) 골암성이 자주 북적(北狄)의 침략을 받자, 태조는 유금필에게 명하여 개정군 3,000명을 거느리고 골암에 이르러 동산(東山)에 대성(大城)을 쌓게 하였다.⁷⁵⁾ 또 태조 11년(928) 2월에는 안북부에 성을 쌓고, 원윤 박권을 진두(鎭頭)로 삼아 개정군 700명을 거느리고 지키게 하였다.⁷⁶⁾ 개정군은 북방 지역에 성을 쌓고 이를 수비하는 군사로서, 중앙에서 파견되었지만 중앙군은 아니었다. 최정예군사로 이루어진 중앙군을 북방지역에 파견하여 성을 쌓고 장기간 수비하게 할 수는 없었다. 개정군은 소수의 중앙군 소속 무관들이 지방 농민군을 지휘·통솔하면서 북방 수비를 담당한 전시체제 군사조직으로 추측된다.

한편 고려 초에 전시체제의 지휘관은 특정 인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73) 鄭景鉉, 「高麗 太祖의 一利川 戰役」, 『韓國史研究』 68, 1990.

74) 『高麗史』 81, 兵 1, 兵制, 定宗 2년. '以契丹將侵 選軍三十萬 號光軍 置光軍司'

75) 『高麗史』 82, 兵 2, 鎭戍, 太祖 3년 3月. '以北界鶻巖城 數爲北狄所侵 命庾黔弼率開定軍三千至鶻巖 於東山 築一大城以居 由是北方晏然'

76) 『高麗史』 82, 兵 2, 鎭戍, 太祖 11년 2월. '遣大相廉卿·能康等 城安北府 以元尹朴權爲鎭頭 領開定軍七百人 戍之'

평시체제 하에서는 6위와 지방군의 지휘관이 특정 인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전시체제 하에서는 부대를 편성할 때마다 새로이 지휘관을 정했던 것이다. 이것은 태조 3년 3월 골암성에 파견할 개정군 지휘관으로 유금필을 임명할 때의 상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태조는 북계 골암진(鵠岩鎭)이 여러 차례 북적(北狄)의 침략을 당하므로 여러 장군을 모아 놓고 의논하기를 “지금 남쪽의 흉적들을 멸하지 못했는데, 북적들도 우려되므로 자나 깨나 걱정이다. 유금필을 파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니 모두들 좋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유금필에게 명하니 유금필은 그날로 개정군 3,000명을 인솔하고 출발하였다.⁷⁷⁾

위에서 태조는 장군들이 모인 회의에서 유금필의 적격 여부를 물어보고, 모두들 좋다고 대답하므로 유금필을 개정군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국왕 태조는 최고통수권자로서 장수 임명권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군들과 작전 회의를 통해 장수를 임명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임명된 전시체제의 지휘관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지휘했던 군대는 평시체제의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환원되고 군사 지휘권도 환수되었다. <표 2>에 제시된 일리천 전투 시의 지휘관들도 대체로 전시체제를 편제할 때 새로이 편성된 지휘관으로서, 전투가 끝나면 모두 다시 평시체제로 환원되었을 것이다.

전시체제 하에서 군대 지휘관을 매번 새로이 정하는 것은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되어 군사편제가 확대된 이유도 있었지만, 지휘관과 군인이 서로 결탁하여 반란을 꾀하거나 적에게 귀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3군 형태의 전시 체제는 신라 하대에 도입된 것이다. 신라는 중대에 6정·9서당·10정·5주서·3무당·계급당 등의 전시 체제를 마련하였다.⁷⁸⁾ 이것은 7세기 후반 문무왕·신문왕 때 대대적으로

77) 『高麗史』 92, 列傳 5, 庚黔弼.

78) 신라의 전시체제에 대해서는 拙稿, 「新羅 中代 軍制의 구조」, 『韓國史研究』 126호, 2004. 참조.

전개된 군제개편 결과 성립된 전시체제였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지휘관과 군인들이 전시체제의 군사조직에 고정적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즉 9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고선사 서당화상비에는 비문을 새긴 인물이 ‘음리화삼천당주 급찬 고금□’로 기록되어 있다.⁷⁹⁾ 음리화정은 10정의 하나이고, 그 아래 군관으로 삼천당주 6명이 배정되어 있었다. 급찬 고금□는 음리화정의 삼천당주 6명 중 1명으로서 평시인데도 전시체제의 군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신라 중대에 성립한 6정·9서당·10정·5주서·3무당·계금당 등의 전시체제 군사조직에는 군인들이 고정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신라 하대에 도입된 3군 형태의 전시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문왕 12년(872) 황룡사를 중창하면서 조성한 「황룡사 9층목탑 사리함기」에는 그것을 지은 박거물(朴居勿)의 이름 앞에 ‘시독(侍讀) 우군대감(右軍大監) 겸성공(兼省公)’이라는 관직이 열거되어 있다.⁸⁰⁾ 즉 사리함기를 지은 박거물은 시독·우군대감·성공 등의 관직을 겸직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군은 좌군, 중군, 우군으로 이루어진 3군 가운데 하나로 우군대감은 3군의 군관직이다. 박거물도 평상시에 전시체제 군관직을 보유한 것이다. 즉 신라시기에 무관들은 평상시에 전시체제의 군관직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전쟁 과정에서 군인들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체제 군사조직의 지휘관을 특정 인물로 고정시키지 않고 매번 새롭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군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전시체제의 지휘관을 새롭게 정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앙군 무관들로 하여금 가족을 거느리고 개경에서 거주하게 한 것도 그중 하나이다. 12세기에 세워진 「김지우(金之祐) 묘지명」에는 그의 조상인 삼한공신 김인윤(金仁允)이 후삼국 통일에서 공을 세우고 “태조를 따라 서울 집(京家)으로 들어

79)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1997, 5쪽. 高仙寺 誓幢和上碑. ‘音里火 三千幢主 級浪 高金□ 鐫’

80)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앞의 책, 366쪽. 皇龍寺 九層木塔 舍利函記. ‘侍讀 右軍大監 兼省公 臣 朴居勿 奉教撰’

갔다.”라고 쓰여 있다.⁸¹⁾ 무반들은 태조 때부터 경가(京家)에서 생활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조 11년(927) 오어곡성이 함락되자, 태조는 항복한 군인들의 가족을 제군(諸軍) 앞에서 기시(棄市)하였다.⁸²⁾ 이것은 군인들로 하여금 다시는 적에게 항복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항복한 군인 6인의 처자를 즉시 처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모두 개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앙군 무관들은 개경의 경가에 거주하였기에 정부의 명령에 따라 즉시 출동할 수 있었지만, 그 가족들은 가장인 무관이 반역이나 항복하는 것을 방지하는 인질의 성격도 띠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중앙군 무관의 가족들이 개경에 집단 거주하는 것은 개경이 적에게 함락될 경우 심각한 작전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실제 현종 2년(1011) 정월, 거란의 2차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왕을 호위하던 장사(將士)들이 모두 가족을 찾으러 사방으로 흩어져 국왕은 도적의 침입을 걱정할 정도였다.⁸³⁾ 이와 같이 무관의 가족들은 인질의 성격도 띠면서 개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태조는 개경에 있는 중앙군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경의 군사력을 육성하였다. 태조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평양을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삼고, 사촌동생인 왕식렴과 광평시랑 열평을 보내어 지키게 하였다.⁸⁴⁾ 그리고 인근의 황주·봉주·해주·백주·염주 등지의 민가를 평양에 옮겨 살도록 하였다. 그 후 평양을 서경(西京)으로 승격시키고 개경과 비슷한 관부와 관리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태조가 평양을 중시한 이유에 대해 주로 고구려 계승 정책과 북진 정책의 기지로 만들고자 한 것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일찍이 “왕실이 개경 세력에 의하여 큰 위협을 당할

81) 金龍善 編, 『高麗墓誌銘集成』, 「64, 金之祐墓誌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126쪽, ‘初功臣仁允 仕太祖統合三國有功 隨太祖入京家焉 金氏之族 世世衣冠顯達’

82) 『高麗史』 1, 世家 1, 태조 11년 11월.

83) 『高麗史節要』 3, 현종 2년 정월 戊寅. ‘王發廣州 次鼻腦驛 蔡文奏扈從將士 皆托尋妻子 四散 昏夜恐有姦賊竊發 請爲幟分插將士冠以辨 從之’

84) 『高麗史』 1, 世家 1, 太祖 원년 9월 丙申.

때, 위태로운 왕실의 권력을 회복하고 개경 세력을 억누른 것은 서경 세력의 동원으로 가능하였다.”⁸⁵⁾라는 지적처럼 태조는 개경 중앙군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경 군사력을 육성한 측면도 있었다. 태조 원년 9월 평양에 파견되어 서경의 군사력을 정비한 왕식렴은 “오랫동안 평양에 진주하면서 항상 사직을 보위하고, 영토를 넓히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⁸⁶⁾라 하듯이, ‘영토를 넓히는 것[拓封疆]’에 앞서 ‘사직을 보위하고[衛社稷]’ 있다고 자임하였다. 실제 왕식렴의 서경 군사력은 혜종 사후 이른바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정종이 즉위하는 데 무력적 뒷받침이 되었다. 이후 서경 군사력은 강조의 정변과 현종의 즉위, 현종 6년(1015) 김훈·최질의 난 진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려 전기 동안 서경의 군사력은 개경의 중앙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태조는 군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즉위 초부터 학사(學士)들을 국정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고⁸⁷⁾, 또 최측근인 유금필에 대한 참소가 들어오자 그를 즉시 섬으로 유배시키기도 하였다.⁸⁸⁾ 유금필은 태조의 제9비 동양원부인(東陽院夫人)의 아버지이고, 태조 8년에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이 되었으며, 태조 17년에는 운주 전투에서 대공을 세워 후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태조 24년에 죽자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추증되어 태조 묘정에 배향된 태조 6대 공신의 한사람이다. 그러한 유금필에 대해 참소가 들어오자 즉시 귀양보낸 것을 통해 군인 세력을 통제하겠다는 태조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군사정변을 통해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왕건은 군인들에 대한 통제에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태조의 군사정책은 후대로 이어져 고려전기 동안 유학을 숭상하고 무인을 억제하는 숭문억무(崇文抑武) 정책으로 계속 추진되었다. 고려 전기의 정치적 안정은 태조의 군사정책에 힘입은 바 많았던 것이다.

85) 河炫綱, 「高麗 西京考」, 『歷史學報』 35·36, 1967, 149쪽.

86) 『高麗史』 92, 列傳 5, 王式廉. ‘式廉 久鎮平壤 常以衛社稷 拓封疆 爲己任’

87) 『高麗史』 127, 列傳 40, 叛逆 1, 桓宣吉. ‘一日 太祖坐殿 與學士數人 商略國政’

88) 『高麗史節要』 1, 태조 14년 3월. ‘庾黔弼 被讒 竄鵠島’

5. 맺음말

지금까지 태조 2년 6위 설치, 태조대 6위의 구성과 군제의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총 4군데에서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종래 연구자들은 이것을 잘못된 사료라고 부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고려사』 편찬자의 착오이고, 둘째, 태조대는 왕조 창업기라서 6위제를 수용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셋째, 태조대에 6위의 무반 관직을 지닌 인물을 발견할 수 없고, 넷째, 『고려사』, 세가에서는 태조 2년에 3성 6부 9시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성종대에 설치되었으므로 6위도 성종대에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첫째, 『고려사』는 여러 사람이 편찬한 것으로 모두 함께 착오를 일으킬 리 없고, 둘째, 군대를 6위로 나누는 것과 같은 군사편제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군인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며, 셋째, 6위의 무반 관직을 지닌 인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고려초기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넷째, 『고려사』, 세가에서만 3성 6부 9시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고 나머지 자료, 즉 『고려사』, 백관지·병지와 『고려사절요』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세가의 3성 6부 9시에 관한 기록만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태조 2년 6위 설치의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추측된다. 그런데 태조 2년에 설치된 6위는 아직 2군 6위와 같은 형태를 취하지는 못하였고, 이후 수많은 군제 개편 과정을 거쳐 2군 6위제로 완성되었다.

태조대의 중앙군인 6위는 무관과 농민군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태조대는 중앙집권적인 군사동원체제와 지방제도가 미숙하여 지방 농민에 대한 군역 징발과 동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태조대 6위는 무관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마군(馬軍)으로 활약하였다. 6위 군인들의 출신 성분을 살펴보면, 첫째, 이들은 궁예 정권의 군인

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태조 왕건이 궁예 정권 군인이었고, 또 개국공신들도 모두 궁예 정권 군인이었다. 그런데 궁예 정권 군인의 출신도 다양하였다. 초적 출신도 있었고, 복진·패강진 출신도 있었으며, 청주 출신도 있었다. 둘째, 태조대 6위 군인에는 고려 건국이후 귀부한 호족의 군인도 일부 있었다. 셋째, 6위 군인에는 발해와 후백제 군인도 다수 편입되었으며,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관이 충원되었다. 후삼국 시기에는 전쟁으로 많은 군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무관의 희생이 컸다. 이에 따라 무관의 충원은 계속 이루어졌다.

태조대 군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나누었다. 평시체제는 6위로 이루어진 중앙군과 각 지역의 지방군이 각각 구분되어 운영하는 체제이고, 전시체제는 이러한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하여 재편성된 3군 형태의 행군조직이었다. 태조대 3군 체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일리천 전투의 고려군 편제이다. 일리천 전투의 3군에 대하여 종래에는 주로 중앙군이라고 보았지만, 3군은 중앙군이 아니라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한 전시체제이다. 한편 태조대에는 군인의 반란을 막기 위해 전시체제의 지휘관을 특정 인물로 고정시키지 않고 매번 새로이 뽑았다. 신라 중대와 하대에 전시체제의 지휘관이 특정 인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태조대에는 전시체제를 편성할 때마다 지휘관을 바꾼 것이다. 또 태조대에는 군인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군 무관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개경에서 살도록 하였다. 무관들은 개경에 거주하면서 정부의 명령에 따라 즉시 출동하였지만, 그 가족들은 가장인 무관이 반역이나 항복하는 것을 방지하는 인질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 태조는 개경에 있는 중앙군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경의 군사력을 육성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전기동안 서경의 군사력은 개경에 있는 중앙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태조대에는 6위를 설치하고, 이를 무관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군제를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나누고 무관에 대한 통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태조대의 군제 운영은 고려국가의 기틀을 확립

하고, 고려전기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역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6위, 무관, 농민군, 중앙군, 지방군. 평시체제, 전시체제

<ABSTRACT>

Establishment of Six Guards and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System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of the Goryeo Period

Kim, Jong-soo

For organization of the central military, six guards were established in the second year of King Taejo during the Goryeo Period (919). The six guards were comprised of military officers and farmers. The centralized military mobilization system and the local-area system were not satisfactorily operated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Accordingly,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six guards were operated mainly by military officers, and they were mostly cavalry soldiers. The origin of the soldiers composing the six guards were diverse. First, the soldiers of the Gungye(弓裔) regime mostly comprised the six guards. Second, some of the soldiers among the six guards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were from wealthy and powerful clans who voluntarily accepted the new regime after the foundation of Goryeo. Third, many soldiers from Balhae and the later Baekje came to be included in the six guards. Furthermore, military officers were recruited in various other ways. During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many soldiers died in the war, and, particularly, large numbers of military officers were lost. Subsequently, the recruitment of military officers continued.

The military system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was divided into two: a peace-time structure and a war-time structure. The peace-time system was operated separately by the central military and was composed of six guards and local military of each region. Meanwhile the war-time operation

was a marching organization in the form of three guards that were restructured by a combination of the central military and the local military. Meanwhile,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in order to prevent any military rebellion, no specific person was designated as the commander of the war-time operation and a commander was designated each time a military operation is needed. Also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in order to prevent the military coups, military officers of the central military were made to reside in Gaegyeong(開京), the capital city, with their families. In addition, King Taejo strengthened the military force of Seogyong(西京), the western capital, to prevent a rebellion by the central military.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system during the King Taejo period established firmly the basis of the country of Goryeo. Also, not only did it bring about the political stability during the early period of Goryeo, but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later period.

Key Words : Six Guards, military officers, farmer's army, the central military, the local military, peace-time organization structure, war-time organization structure